

# 제 1 회 EU-AHCIET 전기통신표준화세미나 개요

이 봉 국 / TTA 국제협력국 국제협력2부장

1. 장소 : Hotel Excelsior, Asuncion, Paraguay

2. 일시 : 1996년 2월 7~9일

3. 주최 : AHCIET(이스파닉 전기통신조사연  
구·사업자협회)

공동개최 : ANTELCO(파라과이전기통신  
공사)

## 4. 참가자 :

- ANTELCO : Gini총재, Carlos M.G. Velaxco이사 등
- ETSI : 사무총장 Karl Rosenbrock
- TI : 의장 Arthur Reilly
- TTC : 전무이사 도쿠오 이이다(飯田 德雄)
- 콜롬비아, 도미니카,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베네주엘라, 과테말라, 호두라스, 코스타리카, 페루, 파나마, 프에르토리코,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스페인, 미국등 각국의 관계자
- 제조업체 관계 : 지멘스, 에릭슨, ALCA-TEL, AT&T등

## 5. 세미나의 규모

가. 개회

1) AHCIET사무총장 Mr. Francisco G.Alamillo의 인사  
EU와 AHCIET간의 협정(상세한 협정내용은 불명이지만,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이 경제지원을 전기통신 분야에 유효하게 사용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AHCIET의장이 밝혔다)체결을 기념하여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GII의 구축에 부심하고 있는 최근의 전기통신분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ITU에 요청하여 ITU-T의 표준화국장 Mr. Imer(급한 일로 연설원고를 제출하고 결석)를 비롯하여 유럽의 ETSI, 미국의 TI, 일본의 TTC대표들의 참가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와같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남미의 스페인어권 국가의 전기통신발전에 공헌해 나가고자 한다.

2) ANTELCO Gini총재의 인사

EU와 AHCIET와의 협정에 의한 제1회 세미나에 세계표준화계의 지도자인 ETSI의 Mr. Karl

Rosenbrock, 미국 T1위원회의 Mr. Arthur Reilly, 일본 TTC의 Iida 전무를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이번을 계기로 남미의 전기통신 발전을 한층 더 기대하고 싶다.

나. 제 1 세션

「세계의 표준화단체와 그 활동」

의장 : Alberto A.Zettina(Ericsson, Mexico)

- 1) ETSI Mr. Karl Rosenbrock  
「세계표준화파트너의 단체인 ETSI」
- 2) T1 committee, Mr. Arthur Reilly  
「미국의 표준화」
- 3) TTC Mr. Iida  
「전기통신의 표준화·정보사회의 표준」
- 4) CINTEL Dr. Marureio Nieto(CINTEL회장)  
「기술규격 인증단체로서 INTEL의 경험」
- 5) ITU-T Dr. Th. Irmmer(Mr. Reilly 대독)  
「ITU의 세계표준화활동 개요」

다. 제 2 세션

「표준화, 전기통신네트워크와 서비스에 있어서 판매자와 사용자의 관계」

의장 : Mr. Karl Rosenbrock

[논점(論点)]

- 기술개발의 영향
- 표준화단체 본연의 자세
- 전기통신의 세계적 시장과 표준
- 전기통신의 말단사용자(END user)와 표준화
  - 공헌과 기대 -
- 표준화의 책임과제
  - 판매자와 사용자의 견해 -

- 1) SIEMENS-ARGENTINE, Dr. A. Marino  
「전기통신망의 발전에 관한 표준화의 영향」
- 2) ALCATEL-SPAIN, Dr Castellanos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ALCATEL의 견해」

- 3) ERICSON-MEXICO, Dr. Zettina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ERICSON의 견해」
- 4) AT&T USA, Dr. M.Puga  
「전기통신 표준화에 관한 세계표준의 영향」
- 5) 프랑스전기통신사용자협회(AFUT) Mr. J.F.Berry  
「AFUT의 활동상황에 관하여」

라. 제 3 세션

「전기통신표준화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

의장 : Mr. Jose Mario(스페인 왕립연구소장)

[주요논점]

-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사업자의 견해
-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고객서비스와 표준과의 관계
-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기술관리와 표준
- 전기통신의 표준화과정에서 사업자의 새로운 활동 -포럼활동에 참가 -

- 1) SPAIN TELEFONICA Dr. T. Castro  
「전기통신의 품질 표준화」
- 2) TELECOM COLOMBIA Dr. A.G.Henao  
「콜롬비아의 전기통신 표준화」
- 3) TELEFONICA DE ARGENTINA Dr. L. Nantes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Argentina Telefonica의 견해」
- 4) PRTC, PUERTO RICO Dr. Jose M. Rivas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Telefonica의 견해」
- 5) ANTELCO-PARAGUAY Dr. A. Arrua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ANTELCO의 견해」

마. 제 4 세션

「GII에 관한 표준화 원탁토론」

사회 : ANTELCO 무선통신·주파수관리부장  
Dr. P.M. Duate

## 패널리스트

Mr. Arthur Reilly	T1	USA
Mr. Karl Rosenbrock	ETSI	Europe
Dr. Jose Mario	왕립연구소	Spain
Mr. Tokuo Iida	TTC	JaPan

## 6. 폐회식

ANTELCO이사 Mr. Carlos로부터 제1회 EU-AHCIET 전기통신표준화 세미나 개최에 노력한 AHCIET 관계자들과 미국, 일본, 유럽의 표준화 기관에서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여 발표(Presentation)해 준데 대해 한사람씩 거명하며 정중한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서 ETSI의 Mr. Rosenbrock, T1의 Mr. Reilly, TTC의 Iida 전무등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

## 7. 참가소감

AHCIET는 남미 스페인어권 국가의 전기통신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82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설립되었다. AHCIET의 명칭은 전기통신조사연구·사업자협회로 되어있지만, 실체는 사업자의 협회적 성격이 강해 EU에 대한 지원금증액 요구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회원각국의 요망에 따르는 것이 주요임무라고 되어 있다.

이번의 세미나는 EU와 AHCIET의 협정체결 기념 제1회이다. 그런데 유럽의 전기통신기기 제조업자를 중심으로한 세미나의 구성에서 보면, 미국의 NAFTA공세에 대하여 EU가 모종의 책임을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럽 가운데서 SIEMENS가 특히 열심이며 이번 세미나의 로지스틱면에서 현지의 ANTELCO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해온 것이 주목할만하다.

## 8. 역자후기

중남미 여러나라를 여행할 때 불편한 일증 한 가지는 통신수단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AMERICAS TELECOM 96의 책자의 통계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남미국가들의 인구(94년도) 4억7500만명에 주요전화회선은 4천100만회선에 불과한데(인구 100명당 8.6회선보유), 이러한 전기통신환경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는 곳이 중남미 스페인어권의 나라들이라 본다.

이 번역문은 일본 TTC의 도쿠오 이이다 전무가 참가한 세미나참석 보고서를 번역한 것으로 우리협회의 회원인 통신사업자와 기기제조업자들이 중남미로 활발히 진출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세계시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세미나에 적극참여하므로써 중남미지역과의 정보통신국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 6월 10~15일 브라질의 리우(Rio de Janeiro)에서 ITU주관으로 열리는 Americas TELECOM 96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행사라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한기업이 독자적으로 이 전시회에서 전시부스를 확보하고, 세계각지의 정보통신사업자들과 겨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남미시장진출의 전망이 밝게보이는듯하다.

역자의 천진한 기우일지모르나 우리나라는 스페인어권과의 경제외교도 활발하지 못한 것 같고 더욱이 이들 나라와 교류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인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도 영어교육열에 밀려 관심밖인 것 같다. 약 5억의 인구가 사는 이지역과의 교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 6월의 Americas 텔레콤 96에 많은 기업이 참관하기를 기대해 본다. TTA